

머리말

이 책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의 박사·석사·학사 과정 학생들과 진행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2010년 2학기부터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정보세계정치’라는 주제로 공부를 시작한 이후,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한울 2011), 『정보세계정치의 이해: 역사와 쟁점 및 전략의 탄생』(한울 2013), 『네트워크 시대의 외교안보: 중견국의 시각』(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사회평론아카데미 2015) 등의 출간에 이어 『신흥권력과 신흥안보: 미래 세계정치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작품을 내놓게 되었다. 이번 작품이 이전과 다른 점은 두 그룹의 학생들이 진행한 연구를 하나의 구도로 결합하는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의 일부는 2015년 한 해에 걸쳐서 ‘신흥안보와 공공외교’(1학기)와 ‘신흥권력과 중견국’(2학기)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대학원 세미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견국의 시각에서 미래 세계정치에

대한 다양한 글들을 같이 읽고 생각을 발전시켜 학기말 논문으로 제출되었던 글들을 방학 기간에 두 차례의 집중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다듬고 보완하여 태어난 결과물들이다. 이 책에 실린 대학원생들의 논문은 이미 2015년 12월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학원생 패널에서 발표되어 호평을 얻은 바 있다. 게다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실릴 정도로 그 문제의식과 완성도가 돋보인 글도 있다. 이외에도 지난 1년 동안의 대학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쓰인 논문들은 여러 편이 더 있었지만 그 중에서 출판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한 논문 4편을 추렸다. 나머지 논문들도 조탁의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여섯 번째 작품의 형태로 세상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 책이 특별히 새로운 이유는 편집본의 필자로 학부생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데 있다. 이전에도 학부생들이 학부 졸업논문을 다듬어서 편집본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2015년 정치외교학부에서 새로이 시작한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의 지원 덕택이다. 이 책에 실린 논문 중에서 5편은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년 2학기 '글로벌 리더십 연습: 탈근대 정보세계정치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학부세미나의 결과물로 제출된 학기말 논문이다. 학부생들이지만 재학 중에 대학원생에 준하는 지적 훈련을 받고 '공부의 맛'을 알게 하자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려서 그야말로 '학업의 표준'을 세우려는 시도를 벌여보았다. 아직 지적 훈련기에 있는 학생들의 글이라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의 글 안에 담긴 문제제기의 참신성이나 논문의 완성도라는 점에서 단순한 습작의 수준을 넘어서는 가능성이 엿보였다. 아직은 어린 지성들의 글이지만 이렇게 엮어서 펴내는 용기를 갖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백미는 단연코 2015년 12월 13-16일에 중국 상해-항주-우시로 떠났던 학술답사였다. 학부생들을 위한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의 지원을 계기로 삼아,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추가 편당을 하고, 답사여행 참가자들도 나름 비용을 각출하여 강의실을 벗어나 현장 속에서 미래 세계정치를 체험하는 여정을 떠났다. 미래 세계정치의 경쟁과 협력의 양상을 엿보게 하는 신흥권력과 신흥안보의 현주소를 살펴보겠다는 취지에 맞추어 현장답사의 장소들이 선정되었다.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 인터넷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배우기 위해서 항주의 알리바바(Alibaba)를 찾았다. 우시에서는 '중국 할리우드'를 의미하는 '화리우드(華萊塢)'와 드라마 세트장으로 유명한 삼국성에 들러서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체감했다. 상해에서는 최근 '대륙의 실수'라는 애칭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샤오미의 오프라인 매장(일명 팬덤 하우스)을 방문했다. 답사여행을 마무리하며 찾은 상해 총영사관에서는 경제외교의 일선에서 활약 중인 외교관들과의 열띤 토론의 자리도 마련했다.

학기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채 바쁜 마음을 다스리며 내딛은 중국 답사여행의 성과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값졌다. 무엇보다도 책에서만 읽던 내용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빌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알리바바의 브리핑 룸에서 홍보 담당자와 질의응답을 벌이고, 상해 총영사관의 회의실에서는 알리바바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공식 회동에 대한 뒷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학생들의 지식은 책으로 읽은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자신들이 체험한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지혜가 되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중국 CCTV에서 방영되었던 유명 드라마인 '삼국지'의 촬영장 세트에서 벌어진 공연에 열광하는 중국 관객들의 환호성과 불과 십여 분 거리에 떨어진 화리우드 테마파크의 썰렁한 전경을 대

비해 보면서, 남이 전해주는 얘기만 듣고는 알 수 없을 오늘날 중국의 고민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믿는다. 답사여행의 또 다른 성과 중의 하나는 역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어울릴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20-30대의 젊은이들이 함께 보낸 3박 4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귀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과 고민의 흔적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책에 담긴 글(또한 다음에 펴낼 글)들에 녹아 있다. 이 글들을 모두 가로지르는 문제의식은 미래 세계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특히 이 책을 준비하는 세미나의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주제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글로벌 패권의 자리를 놓고 벌어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귀착되었다. 이 책에 담긴 논문들의 주제 중 중국의 신흥권력이나 신흥안보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답사여행의 행선지로 중국이 선택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특히 정치외교의 수도인 북경이 아니라,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상해-항주-우시 지역을 찾은 이유도 신흥권력으로서 중국을 이해하는 새로운 착상을 얻기 위함이었다. 답사여행 중에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에게 던졌던 말이 떠오른다. “중국의 미래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알리바바의 잭 마윈 회장에게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러한 주제는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국제정치학계의 화두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5년 12월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한 해 동안의 학술행사를 마무리하며 구성한 총회패널의 주제가 ‘신흥권력의 부상과 한반도’였다. 글로벌화, 정보화, 민주화, 중국의 부상, 다국적 기업의 약진, 초국적 네트워크의 활약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

정치의 변화를 새로운 이론적 렌즈에 비추어 이해하자는 것이 그 총회패널의 취지였다. 사이버 안보, 보건안보, 원자력안보, 환경안보, 난민안보 등과 같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신흥안보 분야의 위협들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하자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근대 국제정치의 틀을 넘어서 등장하는 새로운 행위자와 새로운 권력게임,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미래를 읽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세계정치의 변화에 직면하여 이제는 개도국의 처지를 넘어서 중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야만 할까? 이는 기성학자들의 고민거리인 동시에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학생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특히 이 책의 작업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9명의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 학기 또는 두 학기에 걸쳐서 보여주었던 필자들의 젊은 열정과 지적 의지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의 미완성 초고들을 예닐곱 번 이상씩 읽어보고 코멘트를 주면서도 새로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열정과 의지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물론 젊은 지성들의 고민의 흔적을 ‘역사’로 기록하고 싶은 욕심도 작용했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집중세미나에서 방학 기간임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토론을 맡아준 류운영, 박준병, 박지은, 박진, 송태은, 서지희, 신순선, 양종민, 어운아, 유성, 유안, 이현미, 조문규, 최은실, 최인호, 홍유정(가나다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열린 대학원 세미나에서 반장을 맡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해준 최은실(1학기)과 조문규(2학기)의 헌신에도 감사한다. 이 책의 교정 작업의 총괄 업무를 맡아준 김유정의 도움도 고맙다.

이 책의 작업은 2013년에 중형 연구단 프로젝트(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정치)로 진입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ocial Science Korea, 일명 SSK)을 계기로 하여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의 모태가 된 대학원생 세미나와 병행하여 진행된 ‘중견국외교연구회,’ ‘정보세계 정치연구회,’ ‘기술사회연구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의 말씀을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작업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의 지원이 없었으면 마무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학부생들의 참여를 진작하는 데 글로벌 리더십 연습 세미나의 진행과 현장답사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해준 삼성엘엔에스의 김진구 대표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끝으로 새롭게 벌이는 지적 시도의 취지를 알아주시고 흔쾌히 출판을 맡아 주신 사회평론이카 데미의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6년 2월 13일
우면산을 내다보며
김상배

차례

머리말 5

- 서론 신흥권력과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김상배
- I. 신흥, 새로운 개념의 도입 16
- II. 신흥권력, 새로운 경쟁의 부상 20
- III. 신흥안보, 새로운 협력의 모색 34
- IV. 이 책의 구성 45

제1부 신흥권력의 세계정치

- 제1장 빅데이터의 세계정치와 국가전략 김상배
- I. 머리말 59
- II. 빅데이터의 개념적 이해 63
- III. 빅데이터의 신흥권력적 함의 71
- IV. 빅데이터 국가전략의 방향 78
- V. 맺음말 92

- 제2장 지수(index)의 세계정치: 메타지식의 권력 김상배·김유정
- I. 머리말 99
- II. 메타지식과 메타권력으로 보는 지수 104
- III.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확대재생산 110
- IV. 국가 이미지와 거버넌스 역량의 수치화 118
- V. 고급인력과 지식 생산의 양적·질적 평가 125
- VI. 맺음말 132

- 제3장 인터넷 플랫폼 경쟁과 중국의 도전 박민
- I. 머리말 141
 - II. 3차원 표준경쟁의 시각 147
 - III.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과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151
 - IV. 인터넷 서비스 산업과 중국의 제도표준 163
 - V. 인터넷 질서 비전과 중국의 담론표준 173
 - VI. 맺음말 182
- 제4장 미·중 지적재산권 갈등의 세계정치 체나예
- I. 머리말 193
 - II. 이론 및 개념적 고찰 197
 - III. 미국 기업과 중국 정부 간 갈등 206
 - IV. 미국 정부와 중국 기업 간 갈등 214
 - V.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갈등 223
 - VI. 맺음말 231
- 제5장 반(反)지적재산권 운동의 세계정치 최정훈
- I. 머리말 240
 - II. 반지적재산권 운동의 세계정치적 맥락 243
 - III. HIV/AIDS 의약품 논쟁 250
 - IV. EU 소프트웨어 특허권 논쟁 259
 - V. SOPA 논쟁 266
 - VI. 맺음말 274

제2부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 제6장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안보화 이론의 시각 고은송
- I. 머리말 285
 - II. 안보화 이론과 발화행위 288
 - III. 중국의 신안보관과 사이버 안보관 292
 - IV. 미국의 위협과 중국의 체제안전 298
 - V. 사이버위협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해결 310
 - VI. 맺음말 320
- 제7장 중국의 보건안보 거버넌스: 사스(SARS)의 사례 이수경
- I. 머리말 330
 - II. 이론적 논의 334
 - III. 감염병과 거버넌스 조정 실패 340
 - IV. 사스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346
 - V. 국가와 보건안보 거버넌스 354
 - VI. 맺음말 359
- 제8장 동아시아 난민안보와 중국의 탈북자 정책 이은솔
- I. 머리말 366
 - II. 국제인권레짐의 구조와 동아시아에서의 탈북자 이슈 371
 - III. 보호받지 못하는 탈북자들 378
 - IV. 중국의 탈북자 대응 전략 391
 - V. 맺음말 406
- 제9장 난민 문제와 호주의 중견국 외교 전략 신승휴
- I. 머리말 414
 - II.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 전략 418
 - III. 난민 문제의 이슈구조 424

IV. 호주의 난민정책 변화와 국내적 논의	434
V. 호주의 중견국 외교 전략	439
VI. 맺음말	454
제10장 환경안보와 연무방기 거버넌스: 싱가포르의 전략 사례	문정현
I. 머리말	462
II. 재난 유형과 거버넌스의 이론적 분석틀	465
III. 동남아시아의 연무 문제와 기존 대응의 한계점	470
IV. 싱가포르의 정부 중심 대응 전략	476
V. 싱가포르의 클로멀 다자 네트워크 전략	483
VI. 맺음말	492

찾아보기	497
------	-----

지적역력	504
------	-----